Stage 5 More A Decode and Develop
Queen of the Waves (파도의 여왕)

Cover Note
스토리 북의 앞면과 뒷면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읽기 수업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.

책을 읽기 전
- 책 제목을 함께 읽고 질문하세요. 누가 파도의 여왕인 것 같니? 왜 그렇게 생각하니?
- 보디보드를 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해 보세요. 아이들이 해변이나 바다에서 즐기는 활동에 관해 이야기해보세요.
- 책의 그림들을 훑어보고 그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.

책에 나오는 단어
아이들은 다음의 단어를 소리 내어 읽고 단어들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:
don't by time saw seaside waves holiday bodyboard beach rode grew photo girl
어떤 단어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을 격려하고 조합하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세요.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, 아래에 있는 단어들을 읽어주세요.
oh called asked could thought done Victoria one

책을 읽으면서
- 이야기를 즐겁게 읽어보세요.
- 만약 아이가 읽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단어를 짚어가며 읽고 조합하는 것을 도와주세요.
-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어를 찾도록 하세요. (예: moonlight)
- 아이가 여전히 어려워하는 단어가 있다면, 단어를 단순하게 발음해주세요.
- 의미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여 문장을 다시 읽어보세요.

책을 읽고 난 후
-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다시 읽고, 아빠와 엄마가 할머니의 파도타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세요. 엄마는 왜 '엄마를 잘 알잖아요.' 라고 말했니?
- 23페이지를 다시 읽고 질문하세요. 할머니는 왜 젖게 되었니?
- 마지막 페이지의 농담을 아이가 해석할 수 있도록 질문하세요. 할머니가 파도의 여왕인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이니?

Storybook
스토리 북 교재 내용에 대한 번역입니다. 수업 준비 시, 미리 참고하세요.

P1: Biff, Chip 그리고 Kipper는 엄마, 아빠와 함께 해변에 있었어요. 그들은 할머니와 함께 휴일을 보내고 있었어요.
P2: 그들은 다른 아이들이 바다에서 보디보드를 타고 노는 것을 보았어요.

P3: "재미있어 보인다." Chip이 말했어요. "우리도 보디보드 있었으면 좋을 텐데. 그러면 우리도 파도를 탈 수 있을 거야."
P4: 그 후, 그들은 보디보드를 파는 가게를 보았어요.
P5: 할머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. "내가 아이들에게 하나씩 사주도록 허락하겠니? 휴일 선물로 주게 말이야."
P6: 고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, 결국 아이들은 각각 보디보드를 갖게 되었어요.
P7: "고마워요. 할머니." Biff가 말했어요. "빨리 파도를 타고 싶어요."
P8: 그날 오후 파도가 해변으로 몰아쳤어요.
P9: "와!" Biff가 보디보드를 타면서 말했어요. "재미있다!" "할머니는 어디계시니?" 엄마가 물었어요.
P10: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을 지켜보았어요. "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." 아빠가 말했어요.
P11: 엄마 아빠는 휴 하는 소리를 냈어요. "할머니다!" 아빠가 말했어요. "도대체 그 다음에는 뭘 하실까?"
P12: 할머니는 자신의 보디보드를 갖고 있었어요. "왜 아이들만 재미있게 놀아야 하니?" 그녀가 말했어요.
P13: 할머니는 파도를 타러 나갔어요. "파이팅, 할머니!" Kipper가 소리쳤어요
P14: 할머니는 보디보드를 잘 탔어요. "누가 이런 생각을 해 봤겠어?" 아빠가 놀라며 말했어요.
P15: "나는 알고 있었죠." 할머니가 파도를 탈 때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. "엄마를 잘 알잖아요!"
P16: 곧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았어요. "와!" 한 남자가 Kipper에게 말했어요. "너희 할머니이시니?"
P17: 사람들은 점점 늘어갔어요. "오 이런!" 아빠가 신음했어요. "더는 즐겁지가 않네."
P18: "참 재미있었네." 할머니가 말했어요. "그런데 내 머리는 엉망이 되었군!"
P19: 한 남자가 할머니 사진을 찍었어요. "당신은 파도의 여왕이에요." 그가 말했어요.
P20: 할머니는 미장원 가서 머리를 다시 했어요. "훨씬 보기 좋구나." 할머니가 말했어요. 한 아주머니와 같이 있던 작은 소녀가 할머니를 보았어요.
P21: "파도의 여왕인걸." 아주머니가 말했어요. "빅토리아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겠어요?"
P22: 할머니는 사진을 찍기 위해 방파제에 섰어요.
P23: 밀물이 들어왔어요. 오 이런! 큰 파도가 할머니를 덮쳤어요. 철퍽! 할머니는 흠뻑 젖었어요.
P24: "할머니는 파도의 여왕임에 틀림없어." 아빠가 말했어요.